

集團生活에서의 適應狀態와 精神健康과의 關係

——乘船學科 學生을 中心으로——

河 海 東* · 辛 翰 源**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Health and the Adaptability to the Group Life

Ha, Hae-Dong · Shin, Han-Won

〈目 次〉

| | |
|----------------|---|
| Abstract | |
| I. 緒 論 | 1. 研究設計 2. 道 具 3. 對 象 4. 統計處理方法 |
| 2. 研究目的 | |
| 3. 研究問題 | |
| 3. 用語의 定義 | |
| II. 理論的 背景 | IV. 結果 및 論議 1. 研究結果 및 考察 2. 結論 및 要約 |
| 1. 適應과 不適應의 適用 | |
| 2. 精神健康의 適用 | |
| III. 研究方法 |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factors representing the mental health enumerated in the psychology literature and the adaptability to group life which all of the KMU students encounter. An empirical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not only the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of 4 kinds of students groups but also the impact of interaction which mental health affects to the adaptability to group life among grades.

The several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can be utilized in suggesting the theoretical bases for the countermeasures of the effective group life along with the motivation of KMU students.

The data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nterac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the adaptability to group life were collected from 537 KMU students selected from 4 different kinds of population-(1) Freshman group (2) Sophomore group (3) Junior group (4)

* 韓國海洋大學

** 正會員, 韓國海洋大學

Senior group-by the use of questionnaire method and interview.

The 2-way analysis of variance (MANOVA)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und as follows; (1)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gnition of gloom, personal sensitiveness, antagonism, anxiety and total score among 4 grade groups. (2) The freshmen group and the sophomore group have perceived gloom, personal sensitiveness, antagonism, and total score more acutely than the junior group and senior group have. (3)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ieving an obsession and personal sensitiveness according to the adaptation types to the group life; adapted type, non-adapted type. The non-adapted group has recognized an obsession and personal sensitiveness more seriously than the adapted group has. (4) The interaction between grades and the adaptation status doesn't have an direct influence on the mental health.

I. 緒論

1. 研究의 目的

韓國海洋大學의 乘船學科는 特殊한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全人的인 教育과 장래의 職業과 直結되며 또한 職業에 必要한 專門的인 知識이나 技術을 총망라해서 教習시키고 訓練시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들 特性中 職業과 直結된 教育目的을 보면¹⁾ 다음과 같다.

첫째, 海軍豫備員令에 의한 海軍將校養成과 둘째, 船舶職員法에 의한 海技士養成이며 셋째, 大學教育令에 의한 學士教育에 그 目的을 둔다.

이상의 세 가지 教育目的을 圓滿하고 均衡하게 達成하기 위하여 共同體生活을 통하여 心身을 鍛鍊하고 指導性을 體驗하며 個人, 社會, 國家의 全般的인 問題에 관하여 全體를 보는 眼目으로 洞察하고 把握하여 各者の 責務를 다할줄 아는 責任感과 使命意識이 뚜렷한 痠은이로 成長하도록 하기 위하여 學內寄宿舍에서 엄격한 規律下에 生活시키고 있다.²⁾

따라서 嚴格한 紀綱確立을 위해 정해진 内規에 의한 規律을 學生 스스로가 自律의으로 遵守하고 있으며, 보다 效率的인 學內生活을 위하여 全教授 特히 生活指導教授(官) 및 聯隊幹部들에 의해 確認과 指導가 이루어지고 있다. 本學 教育目的의 達成과 바람직한 集團生活을 위하여 學生들을 指導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問題點들이 展開되지만 주어진 功過規定에 따라 學生들의 生活과 行動에 대한 잘 잘못을 善行點 및 過失點과 關聯시켜 評價를 하고 있다. 이는 組織目標達成을 위하여 그 構成員의 動機誘發과 바람직한 行爲의 強化(Reinfo-

1) 孫兌鉉, 한바다 제15호, 韓國海洋大學, 1981, p. 33.

2) 鄭世謨外 3人, 韓國海技士의 教育發展에 關한 研究, 韓國海洋大學 海運研究所 論文集 第3輯, 1984, p. 58.

rcement)를 위한 하나의 賞罰機制(Reward-punishment mechanism)인 것이다. 이 善・過失點에 대한一般的な見解는 學校生活을 많이 한 高學年에는 善行點이 많을 것이며 學校生活의期間이 짧은 低學年에는 過失點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實態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各者 生活의 適應程度와 行爲의 結果에 대한 善行點과 過失點을 받는 경우가 여러 장면에서 달라지고 그 内容도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表1> 및 <表2>와 같이 善行과 過失의 實態를 보면 善行은 3學年, 2學年에서 많고 過失은 1學年, 4學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善行은 9月과 6月에 많으며 過失도 9月과 10月에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善行과 過失의 比率을 1:3으로 하여 評價에 反映시키고 있으며 學期別로 보면 善・過失 共히 後學期(8月～12月)에 많으며 善行者는 218名, 過失者는 839名으

<表1> 乘船學科 學生의 善行實態

<單位: 名>

| 學年 | 月別 | 乘船學科 學生의 善行實態 | | | | | | | | | | | | 計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1年 | '83 | — | — | 3 | 10 | — | — | 8 | — | 22 | 15 | | | 58 | |
| | '84 | 2 | 1 | 9 | 18 | — | — | 51 | 15 | 19 | 7 | | | 122 | |
| | '85 | — | 12 | 6 | 22 | — | — | 77 | 9 | 8 | 24 | | | 158 | |
| 2年 | '83 | 11 | 45 | 1 | 16 | — | 6 | 3 | 4 | 10 | 14 | | | 110 | |
| | '84 | 46 | 11 | 19 | 40 | — | — | 61 | 33 | 14 | 26 | | | 250 | |
| | '85 | 74 | 8 | 8 | 40 | — | — | 82 | 19 | 52 | 12 | | | 295 | |
| 3年 | '83 | 22 | 27 | 1 | 6 | — | — | 3 | 1 | 3 | 15 | | | 78 | |
| | '84 | 10 | 15 | 3 | 38 | — | — | — | 20 | 10 | 20 | | | 116 | |
| | '85 | 59 | 3 | — | 19 | — | — | 15 | 3 | 9 | 29 | | | 137 | |
| 4年 | '83 | 4 | 1 | 9 | 24 | — | — | 16 | — | 8 | 16 | | | 78 | |
| | '84 | 13 | 5 | 3 | 25 | — | 31 | 9 | 4 | 5 | 33 | | | 128 | |
| | '85 | 20 | — | 3 | 3 | — | — | 52 | 6 | 5 | 39 | | | 128 | |
| 3年間合計 | 1年 | 2 | 13 | 18 | 50 | 2 | — | 136 | 24 | 49 | 46 | | | 338(0.28*) | |
| | 2年 | 131 | 2 | 64 | 28 | 96 | 3 | — | 146 | 56 | 76 | 52 | | | 655(0.55*) |
| | 3年 | 91 | 1 | 45 | 4 | 63 | 3 | — | 18 | 24 | 22 | 64 | 2 | | 331(0.55*) |
| | 4年 | 37 | 6 | 15 | 52 | 3 | — | 31 | 77 | 10 | 18 | 88 | 1 | | 334(0.28*) |
| 總 計 | | 261 | 2 | 128 | 65 | 261 | 2 | — | 377 | 114 | 165 | 5 | 250 | 4 | 1658(0.40*) |

註: 1) ○숫자는 序列임. 2) *는 1年間 1人의 善行回數

로 過失者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는 寄宿舍生活에서 生活에 模範이 되어 善行點을 받는 경우를 適應된 狀態라고 보고, 또 規定을 違反하여 過失點을 받는 行爲, 즉 逸脫行動을 하는 경우를 不適應된 狀態라고 分하여 生活의 適應狀態(善行·過失)와 精神健康과의 關係를 밝혀서 生活指導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함에 目的이 있고, 또한 本研究結果로 인하여 보다 나은 生活指導方案樹立에 어떤 示唆點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表2〉

乘船學科 學生의 過失實態

〈單位: 名〉

| 學年 | 年度 | 月別 | | | | | | | | | | | | 計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1年 | '83 | 6 | 123 | 153 | 58 | 5 | — | 272 | 157 | 220 | 18 | | | 1010 |
| | '84 | 8 | 146 | 87 | 32 | — | 20 | 125 | 72 | 81 | 2 | | | 573 |
| | '85 | 47 | 100 | 92 | 44 | — | — | 199 | 168 | 185 | 14 | | | 849 |
| 2年 | '83 | 63 | 88 | 103 | 34 | 9 | — | 315 | 117 | 128 | 3 | | | 860 |
| | '84 | 24 | 118 | 43 | 47 | — | 92 | 118 | 74 | 57 | 12 | | | 585 |
| | '85 | 120 | 50 | 95 | 56 | — | — | 101 | 139 | 76 | 6 | | | 643 |
| 3年 | '83 | 13 | 10 | 30 | 24 | 8 | — | 134 | 61 | 25 | — | | | 305 |
| | '84 | 16 | 27 | 16 | 14 | — | — | 62 | 66 | 33 | 33 | | | 267 |
| | '85 | 28 | 16 | 23 | 9 | — | — | 54 | 65 | 29 | — | | | 224 |
| 4年 | '83 | 131 | 192 | 96 | 97 | 66 | — | 80 | 40 | 62 | 4 | | | 768 |
| | '84 | 86 | 63 | 262 | 86 | — | 154 | 52 | 151 | 44 | 36 | | | 934 |
| | '85 | 89 | 63 | 57 | 83 | — | — | 65 | 70 | 74 | 30 | | | 531 |
| 年間 合計 | 1年 | 61 | 369 | 332 | 134 | 5 | 20 | 596① | 397③ | 486② | 34 | | | 2434(2.03*) |
| | 2年 | 207 | 256 | 241 | 137 | 9 | 92 | 534① | 330② | 261③ | 21 | | | 2088(1.74*) |
| | 3年 | 57 | 53 | 69 | 47 | 8 | — | 250① | 192② | 87③ | 33 | | | 796(1.33*) |
| | 4年 | 306③ | 318② | 415① | 266 | 66 | 154 | 197 | 261 | 180 | 70 | | | 2233(1.86*) |
| 總 計 | | 631 | 996⑤ | 1057③ | 584 | 88 | 266 | 1577① | 1180② | 1014④ | 158 | | | 7551(1.80*) |

註: 1) ○의 숫자는 序列임. 2) *는 1年間 1人의 過失回數

2. 研究問題

本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研究問題를 設定한다.

[研究問題 1] 學年에 따라 精神健康은 差異가 있는가?

[研究問題 2] 適應상태에 따라 精神健康은 差異가 있는가?

[研究問題 3] 學年과 適應상태의 相互作用이 精神健康에 影響을 주는가?

3. 用語의 定義

本 研究를 위하여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1) 適應: 本 研究에서는 寄宿生活에서 模範이 되어 善行點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2) 不適應: 寄宿生活에서 諸般規程을 違反하여 過失點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3) 精神健康: 本 研究에서 使用한 簡易精神健康診斷検査의 5 가지 下位尺度(강박증, 우울증, 대인예민성, 적대감, 불안)로 評價된 精神健康을 말한다.

II. 理論的 背景

1. 適應과 不適應의 適用

人間은 언제나 舊有 없는 環境의 刺戟에 대하여 反應을持續하고 있으며 항상 개체의 諸條件, 諸特性을 환경적 조건에 合致 또는 適合시켜 調整해 가고 있다. 그 調整이 成功的으로 遂行되었을 때 이를 順應(adaption) 또는 適應(adjustment)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順應과 適應의 概念區分은 前者は 주로 生理的 調整으로 그다지 心理的・社會的으로 作用하지 않아도 調整이 成功的으로 이룩될 때를 말하며 後者は 주로 心理的・社會的의 意味를 지니고 있는 調整을 뜻한다. 反面에 個人이 주위 環境이나 社會規範 및 要求에 대하여 圓滿히 對應하지 못하거나 他人에게서도 認定을 받지 못하고 蔓藤, 不安 및 不滿이 쌓여 있는 사람은 不適應한 行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³⁾

Crow & Crow는 青年期의 社會的 領域을 家庭, 學校, 職場, 一般社會를 들어 각각 그 領域에 따라 慮起될 수 있는 問題들을 들고 있다. 家庭에서는 兩親과의 人間關係, 家族에 대한 青年的 態度, 家族關係와 青年的 權利 및 責任, 親父母 및 다른 친척과의 관계, 젊은이와 家庭의 經濟的事情, 젊은이의 社會生活에 대한 양친의 責任感 등을 들고 學校生活의 問제는 學業의 問題, 學習條件, 젊은이의 學習習慣에 대한 成人の 責任, 커리큘럼(Curriculum) 問題, 適當한 過程의 선택, 學校에서의 社會的 活動, 師弟關係 및 기타 成功的인 學校生活의 要因 등을 들고 있다. 社會生活의 適應問題는 젊은이의 欲求와 興味에 대한 成人の 영향, 젊은이의 테크레이션 問題 및 그 施設에 대한 好意的 반응, 交友의 問제 등

3) 金鳳韶: 青年期의 自己概念, 社會的 態度 및 適應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6, p. 21.

을 들고 있다.⁴⁾

適應過程에 대한 理解와 併行하여 不適應의 基準을 設定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價值判斷 없이는 適應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價值判斷이라는 것은 人間이나 社會에 있어서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한 見解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不適應에 대한 基準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⁵⁾

첫째, 心理的 不便感이다. 心理的 不便感이 보통 不適切한 適應의 徵表로 看做되기는 하나 그 反對——心理的 安樂——가 반드시 成功的인 適應의 徵表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慢性的으로 不安하거나 憂鬱한 사람은 자기의 生活이 正常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認知的 非能率性이다. 精神的 疾患이 있는 많은 患者들은 學校에서 失敗하면 연령에 相應하는 責任을 감당하지 못할 때 知的·社會的 効率性이 退步하여 適應障壁에 부딪치게 된다.

셋째, 身體機能의 障碍이다. 身體組織의 損傷으로 나타나는 不適應으로 심지어는 죽음을 超來하기까지 한다.

넷째, 社會規範으로 부터 離脫行動이다. 離脫의 基準을 通用하는 것은 매우 任意의이기는 하나, 社會秩序를 크게 違反한다든가 또는 他人이나 自身의 安全을 위협하는 理由에서 不適應을 超來하게 된다.

適應評價에 있어서 〈標準〉의 問題는一般的으로 個人內의 標準과 個人間의 標準이 있다.

個人內의 標準이란 日常的·正常的 行動에서 出할 수 있는 평가나 또는 그가 漢成할 수 있는 最善의 効率性, 安樂, 身體的 健康等에 關한 評價에서 規準을 얻는다.

이와 같이 해서 每日 보통때는 가벼운 不安밖에 느끼지 않던 사람이 不安이 대단히 높아지는 時間이 한동안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그自身的 個人的 표준에서의 離脫을 障碍의 徵候라고 看做한다.

또 個人間의 標準이란 한 個人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思考 및 行動의 표준적인 形態에서 離脫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을 標準으로 삼을 것인가? 規範을 設立하기 위해서 누구를 標準으로 使用하는 것이 좋을까? 平均的인 人間이 比較의 基準이 될 수 있는 좋은 標準이라고 主張할 수 있을까? 그 規範에서 어느 程度 離脫한 것을 非正常 혹은 痘的이라고 할 것인가? 등등 이러한 時間에 대하여 科學的으로 對答하기 보다는 任意의인 渡定을 대릴 뿐이라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適應評價의 問題點은 있지만, 本學 寄宿舍 生活規定에서는 學生生活의 適應

4) Crow, L. D. & Crow, A. Adolesc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McGraw-Hill p. 381~514, (1956), 金鳳超, 上揭書論文에서 再引用。

5) 서용경譯: 性格과 適應, 익문사, 1980, p. 32.

과 관련하여 7 가지 善行基準과, 不適應과 관련하여 50가지 過失의 基準을 두어 生活의 行動을 評價하고 있다.

2. 精神健康의 適用

健康한 마음의 所有者는 些少한 困難에 當面하여도 이때에 일어나는 感情的 問題(欲求不滿이나 葛藤)를 적당히 處理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든가 自己自身에게 傷處를 입힌다든가 하는 일이 없고 社會生活을 試驗하여 잘 때에 부딪치는 여러가지의 困難을 適應異常에 빠지지 않고 끝고 넘어가는 能力を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다.⁶⁾

또 精神健康에 대한 概念을 消極的인 概念과 積極的인 概念으로 나눌 수 있으며, 消極的인 見解로는 精神病, 神經症, 劣等感, 犯罪感 기타의 모든 精神的異狀性을 가지지 않는 정신상태를 가리키며, 積極的인 見解에서 精神健康의 基準⁷⁾을 좀 더 細分化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自己의 性格構造와 適應問題에 관한 洞察과 理解이다. —적응성이 훌륭한 사람은 自己의 性格構造와 自己의 適應問題에 대한 洞察力과 理解를 가진다. 즉, 자기의 才能, 興味, 欲望等과 그리고 自己의 缺點이나 知的·感情的 特殊性 등의 性格上, 生活上의 문제를 洞察하고 理解하고 評價한다.

둘째, 健全한 生活態度와 生活方式이다. —健康的 精神의 所有者는 만족스러운 生活態度를 가지며 精神이 健康한 사람은 日常生活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健全한 態度를 나타내며 健全한 方法으로써 이를 解決하려고 한다.

셋째, 自主性이다. —진강하고 能率的인 精神의 所有者는 快適性을 가지며 不斷한 變化와 無常한 人生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自主的 능력을 가진다.

넷째, 欲望의 調整力이다. —사람은 어릴수록 本能에 의한 行動을 많이 하는 법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成長함에 따라 漸次로 克己力を 얻게 되어 自己의 衝動的 欲望實現의 行動을 式華시켜서 가정이나 一般社會의 안寧을 維持해 나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社會가 期待하는 方向으로 自己의 欲望을 조절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不健全한 精神의 所有者는 欲望實現에 있어서 自己中心的인 非妥協的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社會的 目標에 위배되는 行動을 하는 수가 많다.

다섯째, 社會的 適合性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家庭에서나 學校 및 社會에서나 만족스러운 人間關係를 維持할 수 있는 能力を 가진다.

6) 張秉琳: 心理學概論, 서울 博英社, 1981, p. 103.

7) 金道煥: 教育의 心理學的 基礎, 第一文化社, 1977, p. 56~59.

여섯째, 健全한 情緒生活이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適切하고 滿足스러운 情緒的 安定性과 正常의 情緒的 成熟性을 가진다. 왜냐하면 精神不健康은 根本적으로 情緒的 落落, 情緒的 不適應, 情緒的 未成熟에 起因하는 情緒的 攪亂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日常의 課業에 있어서의 目標意識과 热誠이다. —정신건강자는 家庭生活, 職場生活, 學究生活 등에 있어서 뚜렷한 目標를 가지고 이에 到達하려는 热誠을 나타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

여덟째, 幼少時에 形成한 憲定한 習慣에 의한 生活이다. —바람직한 適應生活은 幼少時의 生活에서 獲得한 좋은 습관을 기초로 삼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基礎가 되는 主要한 습관은 ① 身體的 習慣으로서 取食, 睡眠, 運動, 忍耐力 등에 있어서의 좋은 습관을 들 수 있으며, ② 社會的 습관으로서 禮節, 人事, 協助, 責任, 信用, 親切 등에 있어서의 좋은 습관을 들 수 있으며, ③ 精神生活에 있어서 克己力, 情緒的 調整, 情緒의 表現, 觀察, 注意, 記憶, 思考 등에 있어서의 좋은 습관을 들 수 있다.

한個人이 適應이 잘 되지 않아 나타나는 行動特性은 精神의 不健康과 密接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性格的으로 또는 適應이 되지 않아 非正常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精神의 不健康狀態가 나타나는지, 不健康한 精神健康이 內在하기 때문에 性格과 生活에 不適應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로 惡循環現狀으로 보는 것이 合當할 것으로 생각된다.

SCL-90의 簡易精神診斷検査는 한효택(1978)이 韓國版으로 標準化하여 下位尺度의 信賴度를 Cronbach의 α 係數로 計算하여 .63에서 .83까지로 보고⁸⁾하고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SCL-90의 9개 下位尺度중 5 가지 下位尺度를 使用했으며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① 強迫症：스스로가 하지 않으려는 努力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나 衝動 및 幸福을 反復해서 經驗하게 되는 神經的 경향이다. 強迫觀念은 깊은 생각이나 心想을 끈질기게 강요하는 것이며 強迫行動은 어떠한 행위나 意識을 수행하도록 하는 불가항력의 강한 衝動이며 強迫感은 個人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要求를 하는데 그 결과로 인해 자기 과밀적 행위를 초래하게 되는 것⁹⁾이라고 하였다.

② 豪鬱症：氣分이나 感情이 매우 低調되어 있고 每事에 흥미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狀態이며 우울과 불안의 다른 점은 不安이 다가오는 어떤 예기치 못한 위협에 대한 反應이라고 한다면 우울은 지나간 슬픈 기억을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 水準에서 되돌아 보아 現在와 未來를 비관적으로 볼 때 생기는 心的 反應이라고 본다¹⁰⁾고 하였다. 우울의 증세는 生活에서 결망과 失意가 연속될 때 나타나는 것이며 우울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8) 金在煥·金光日：簡易精神診斷検査(SCL-90)의 韓國版標準化研究Ⅲ,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제2집, 1984, p. 279.

9) Eastwood Atwater著, Psychology of Adjustment, 金仁子譯, 正民社, 1984, p. 168.

10) 鄭聖德外 6人：大學生들의 精神健康에 대한 評價,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985, p. 4.

個人의 統制할 수 없는 결과 그 自體가 아니라 그 個人이 그 結果의 原因을 어떻게 解明하느냐 하는 것에 있다¹¹⁾고 하였다.

③ 對人銳敏性：對人關係에 있어서 自激之心과 劣等意識을 나타내는 경향이다.

初期對人關係 特性으로 Kelley(1950)는 따뜻한 사람이냐 또는 차거운 사람이냐에 관한 情緒的 判斷도 全體的인 人像에 영향을 끼치며 따뜻한 사람이 더 바람직한 資質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¹²⁾

Dion Berscheid & Walster(1972)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行한 모든것을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을 後光效果(Halo effect)라 하며 그와는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傾向을 惡魔效果(devil-effect)라고 하였다.¹³⁾

④ 通對感：他人과 事物에 대한 짜증과 攻擊的 衝動을 초래하는 感情을 말한다.

賞은 그 行爲에 대하여 特殊한 것이며 有益하므로 사람이 올바른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懲은 行하여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러나 역시 懲을 준 후에 바람직한 反應이 發見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處罰의 使用은 치료자와 치료에 反對되는 과정적 情緒狀態를 유발할 수 있고 역으로 공격행동, 적대심을 증가시킬 수 있고 自尊心을 감소시키고 適應的 行動보다 오히려 도피를 強化할 수 있다¹⁴⁾고 하였다.

⑤ 不安：緊張, 焦燥, 神經過敏 등 臨床에서 보는 不安神經症, 症勢를 말하며 그 一般化된 증상은 항상 不安하고 그 때문에 우울하며, 항상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항상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 없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 것이다.

III. 研究方法

1. 研究設計

本 研究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研究設計는 〈表3〉과 같다.

〈表3〉 研究設計

| 연구문제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
|------|------|------|----------|
| 1 | G | M | G : 학년 |
| 2 | A | M | A : 적응상태 |
| 3 | G, A | M | M : 정신건강 |

11) 李勳求譯：現代心理學概論，正民社，1984，p. 513.

12) 金仁子譯：前揭書，p. 168.

13) Dion, K. E. Berscheid and E. Walster,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1972, pp. 285~90.

14) 金慶麟·金榮煥共譯：一般心理學原論，중앙출판사，1984，p. 474.

여기서 학년은 集團의 現在 學年을 그대로 適用하여, 1學年集團, 2學年集團, 3學年集團 및 4學年集團의 個 集團으로 나누고, 適應狀態는 善·過失點 유무를 基準으로 善行點이 있는 集團, 善·過失點이 전혀 없는 集團 및 過失點이 있는 集團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2. 道 具

精神健康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簡易精神診斷検査(SCL-90)¹⁵⁾을 使用하고, 下位尺度 중 강박증, 우울증, 대인예민성, 적대감 및 불안증에 대하여 分析하였다. 簡易精神診斷検査의 檢查一再検査 信賴度는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76以上이며 內的 合致度도 0.68以上으로서 比較的 신뢰로운 道具로 報告¹⁶⁾되고 있다.

<表4> 檢查一再検査 信賴度 및 內的合致度

| 증상차원 | 신뢰도 계수 | 내적합치도 α 계수 |
|-------|--------|-------------------|
| 강박증 | 0.79 | 0.83 |
| 대인예민성 | 0.79 | 0.84 |
| 우울증 | 0.76 | 0.89 |
| 불안 | 0.77 | 0.86 |
| 적대감 | 0.73 | 0.68 |

3. 對 象

標本은 먼저 2段階 총화표본추출(two stage 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學年에 따라 4集團으로 나누고, 다음에 各 學年에 따라 航海學科, 機械學科 두 集團으로 나누었다. 모

<表5> 對 象

| 학년 학과 상태 (선·과실) | 학년 | | | | | | | | 계 |
|--------------------------|-----|-----|-----|-----|----|----|----|----|-----|
| | 1 | 2 | 3 | 4 | 1 | 2 | 3 | 4 | |
| 선행 절차 | 13 | 14 | 13 | 11 | 6 | 6 | 11 | 12 | 86 |
| 선·과실없음 | 20 | 34 | 23 | 14 | 18 | 19 | 24 | 41 | 198 |
| 과실 있는 | 16 | 39 | 33 | 28 | 42 | 36 | 19 | 25 | 253 |
| 소계 | 49 | 87 | 74 | 53 | 63 | 61 | 69 | 78 | 537 |
| 계 | 136 | 127 | 127 | 147 | | | | | |

15) 김광일 외 : 한이경신진단검사, 서울, 중앙직영출판부, 1984.

16) 김광일 외 : 한이경신진단검사 설지요강, 서울, 중앙직영출판부, 1984, pp. 34~35.

두 8個集團을 基準으로 各 集團에 대하여 80名씩 總 640名에게 精神診斷検査를 實施하였다. 여기서 回收된 設問應答紙 중에서 한 問項이라도 누락된 應答紙를 제외시켰으며 最終的인 研究對象者는 〈表5〉와 같이 537名이다.

4. 統計處理方法

研究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研究設計에서와 같이 精神健康을 從屬變因으로 하여 學年(4) × 適應狀態(3)의 2元變量分析(2 way analysis of variance)을 實施하고, 各 集團別 個別比較를 위하여 t檢證을 實施하였다. 統計處理는 SPSS의 Subprogram에 의하여 電算處理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1. 研究結果 및 考察

精神健康의 各 下位尺度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강박증

①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에 대한 2元變量分析 結果는 〈表6〉과 같다.

〈表6〉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에 대한 分析

| 변 량 원 | 자승화(SS) | 자유도(df) | 평균자승화(MS) | F |
|-------|-----------|---------|-----------|--------|
| G | 231.523 | 3 | 77.174 | 2.315 |
| A | 210.517 | 2 | 105.259 | 3.157* |
| G × A | 191.212 | 6 | 31.869 | 0.956 |
| 오 차 | 17504.155 | 525 | 33.34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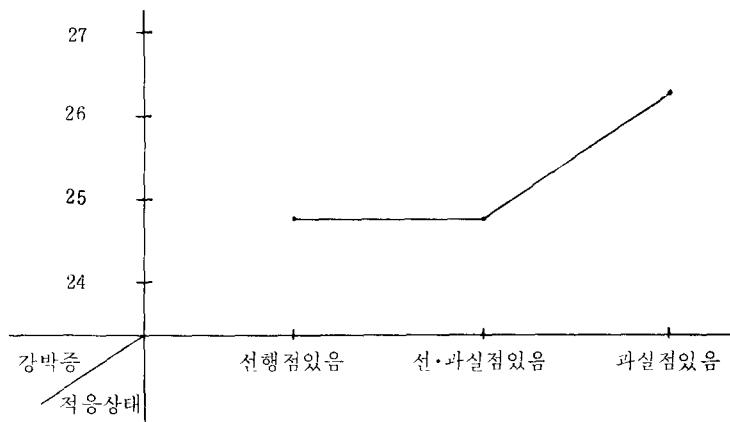
* P < 0.05, G : 學年, A : 適應狀態

〈表6〉과 같이 適應狀態에 따라 강박증은 5% 有意水準에서 差異가 있고, 學年이나 相互作用效果에 따라서는 差異가 없다. 〈表6〉의 結果에 따라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의 平均과 標準偏差는 〈表7〉과 같다.

〈表7〉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의 平均과 標準偏差

| 적 응 상 태 | N | 평 균 | 표 준 편 차 |
|---------------|-----|-------|---------|
| 선 행 점 있 음 | 86 | 24.90 | 5.73 |
| 선 · 과 실 점 없 음 | 198 | 24.94 | 5.86 |
| 과 실 점 있 음 | 253 | 26.12 | 5.76 |

〈表7〉에 의하여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의 정도

②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의 個別比較를 위해 實施한 t 檢證結果(일방적 검증)는 〈表8〉과 같다.

〈表8〉 適應狀態에 따른 강박증의 t 檢證

| 적응상태 | 선행점 있음 | 선행·파실점 있음 | 파실점 있음 |
|-----------|--------|-----------------|------------------|
| 선행점 있음 | — | 0.0530 (282) | 1.6341* (337) |
| 선행·파실점 있음 | — | — | 2.1379* (449) |
| 파실점 있음 | — | — | — |

* $P < 0.05$, (*) 속은 자유도

〈그림1〉과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박증은 過失點이 있는 集團이 善行點이 있는 集團이나 善·過失點이 없는 集團에 비해 높다.

③ 考察

강박증은 善·過失點에 따라 有意味한 差異가 나타났으며, 특히 學年에 關係없이 過失點이 있는 學生들이 積極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現象은 寄宿舍生活과 學生들의 行動全般에 대하여 함께면에 完全無缺한 狀態를 要求하게 되는 데서 오는 反應(Response)이라고 보여지며, 또 어떠한 指通이 되었을 때 學生 서로를 비교하여 경쟁 속으로 끌어들여 生活과 行動에 압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나타난 反應이라고 보여진다. 過失指通이 자주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心的인 부담에서 벗어날려고 하거나, 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노력을 增加하거나 行動에 대해 2번 이상씩 再檢討, 確認함으로써 自身의 不安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關係와 狀態가 너무 오래 持續된다면 個人에 따라서는 生

活 속에서 自身이 극복할 수 없다는 나약함이 行動으로 나타날 수 있는 要因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2) 우울

①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우울에 대한 2元變量分析 結果는 〈表9〉와 같다.

〈表9〉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우울에 대한 分析

| 변 양 원 | 자 승 화(SS) | 자 유 도(df) | 평균자승화(MS) | F |
|-------|-----------|-----------|-----------|---------|
| G | 888.639 | 3 | 296.241 | 4.507** |
| A | 260.950 | 2 | 130.475 | 1.985 |
| G × A | 533.869 | 6 | 88.978 | 1.354 |
| 오 차 | 34504.729 | 525 | 65.123 |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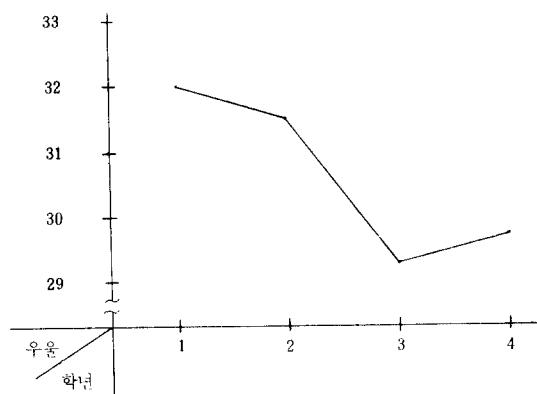
G : 학년, A : 적응상태

〈表9〉과 같이 學年에 따라 우울은 1% 有意水準에서 差異가 있고, 適應狀態나 相互作用에 의해서는 差異가 없다. 〈表9〉의 結果에 따라, 學年에 따른 우울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보면 〈表10〉과 같다.

〈表10〉 學年에 따른 우울의 平均과 標準偏差

| 학년 | N | 평균 | 三寸偏差 |
|----|-----|-------|------|
| 1 | 136 | 32.00 | 8.93 |
| 2 | 127 | 31.39 | 7.56 |
| 3 | 127 | 29.09 | 7.71 |
| 4 | 147 | 29.45 | 8.21 |

〈表10〉에 의하여 學年에 따른 우울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學年에 따른 우울정도

(2) 學年에 따른 우울의 個別比較를 위해 실시한 t 檢證(일방적 검증)結果는 〈表11〉과 같다.

〈表11〉 學年에 따른 우울의 t 檢證

| 학년 | 1 | 2 | 3 | 4 |
|----|---|-----------------|-------------------|-------------------|
| 1 | — | 0.5936 (261) | 2.809** (261) | 2.4939** (281) |
| 2 | — | — | 2.3909** (252) | 2.0157* (272) |
| 3 | — | — | — | 0.3709 (272) |
| 4 | — | — | — | — |

* $P < 0.05$, ** $P < 0.01$, () 속은 자유도

〈그림 2〉와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學年과 4 學年보다는 1 學年, 2 學年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考察

寄宿生活속에서個人의 不適應(過失)의 原因을 첫째, 外部(지나친 간섭, 엄한 규율등)에 있는 경우와 둘째, 行動不注意와 規則違反 때문에 받는 過失制度에 대한 無關心은 물론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보는 경우와 셋째, 모든 것이 自己能力이 不足한데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겠다. 세가지의 경우 모두가 우울감을 가질 수 있는 原因이 되지만 특히 세번째 경우와 같이 不適應(過失)의 原因이 “氣質”과 같은 고정된個人의 特質과 關係되는 것은 심각한 問題로 남기 때문에 指導에 있어서個人的인 面談으로 예방이 요구되며 더 심층적인 연구가 必要하겠지만 반대로 不適應(過失)이 “行動”과 관계된 것이라면 순간적인 우울현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善·過失點과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으나 學年과는 有意味의 差異가 있었다. 즉, 學年이 올라갈수록 우울증의 강도가 낮다는 것은 高學年이 될수록 學業에 대한 目標成就 및 生活適應을 잘 해 나가고 있으나 低學年에서는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鄭聖德¹⁷⁾은 우울연구에서 男大生에 있어서 1 學年 學生들의 우울증의 강도가 有意味으로 높았다고 하여 本 研究結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3) 대인예민성

(1)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대인예민성에 대한 2元變量分析結果는 〈表12〉와 같다.

〈表12〉와 같이 學年 혹은 適應狀態에 따라 각각 1%, 5% 有意水準에서 對人銳敏性은 차이가 있고, 相互作用效果는 없다. 먼저 〈表12〉의 결과에 따라 學年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平

17) 鄭聖德와 6人: 大學生들의 精神健康에 대한 評價,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1985, p. 4.

均과 標準偏差를 보면 〈表13〉과 같다.

〈表12〉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대인예민성에 대한 分析

| 변 량 원 | 자 승 화(SS) | 자 유 도(df) | 평균자승화(MS) | F |
|-------|-----------|-----------|-----------|---------|
| G | 501.682 | 3 | 167.227 | 5.919** |
| A | 170.123 | 2 | 85.062 | 3.011* |
| G × A | 194.500 | 6 | 32.417 | 1.147 |
| 오 차 | 14833.289 | 525 | 28.2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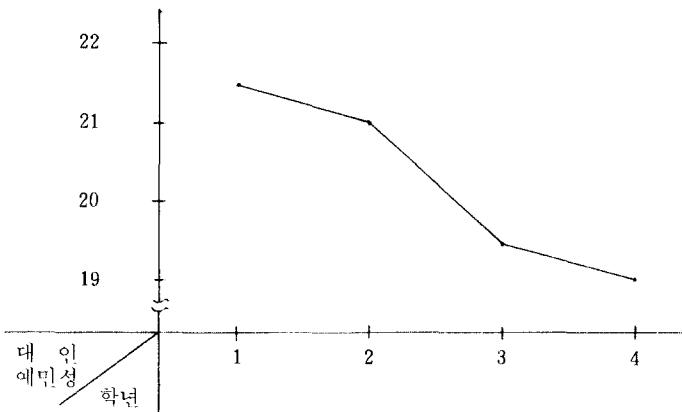
** P < 0.01, * P < 0.05

G : 학년, A : 적응상태

〈表13〉 學年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平均과 標準偏差

| 학 년 | N | 평 균 | 표 준 편 차 |
|-----|-----|-------|---------|
| 1 | 136 | 21.51 | 5.86 |
| 2 | 127 | 20.89 | 5.47 |
| 3 | 127 | 19.54 | 5.04 |
| 4 | 147 | 19.32 | 4.96 |

〈表13〉에 의하여 學年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學年에 따른 대인예민성 정도

② 學年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個別比較를 위해 실시한 t 檢證(일방적 검증) 結果는 〈表14〉와 같다.

〈그림 3〉과 〈表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學年 혹은 4學年보다 1學年, 2學年이 對人銳敏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14〉 學年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t 檢證

| 학년 | 1 | 2 | 3 | 4 |
|----|---|-----------------|-------------------|-------------------|
| 1 | — | 0.8820 (261) | 2.9025** (261) | 3.3896** (281) |
| 2 | — | — | 2.0374* (252) | 2.4818** (272) |
| 3 | — | — | — | 0.3621 (272) |
| 4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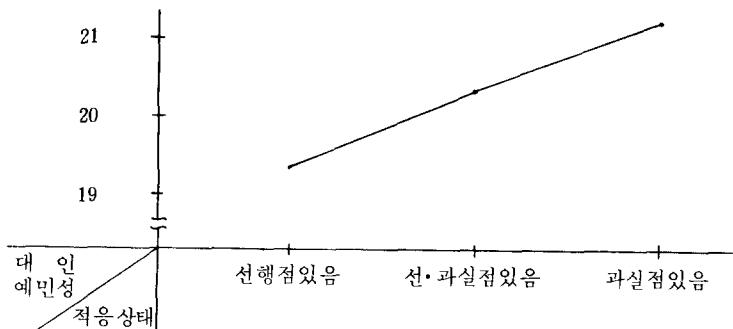
* $P < 0.05$, ** $P < 0.01$, () 속은 자유도

(3) 適應狀態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平均과 標準偏差는 〈表15〉와 같다.

〈表15〉 適應狀態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平均과 標準偏差

| 적용상태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선행점 있음 | 86 | 19.24 | 5.36 |
| 선·파실점 없음 | 198 | 20.31 | 5.24 |
| 파실점 있음 | 253 | 20.65 | 5.52 |

〈表15〉에 의하여 適應狀態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適應狀態에 따른 대인예민성 평균

(4) 適應狀態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個別比較를 위해 實施한 t 檢證(일방적 검증) 結果는 〈表16〉과 같다.

〈그림 4〉와 〈表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過失點이 있는 集團은 善行點이 있는 集團에 比해 對人銳敏性이 높다.

〈表16〉 適應狀態에 따른 對人銳敏性의 t 檢證

| 적 응 상 태 | 선 행 점 있 음 | 선 · 과 실 점 없 음 | 과 실 점 있 음 |
|---------------|-----------|------------------|-------------------|
| 선 행 점 있 음 | — | 1. 5646 (282) | 2. 0553* (337) |
| 선 · 과 실 점 없 음 | — | — | 0. 6622 (449) |
| 과 실 점 있 음 | — | — | — |

* P < 0.05, () 속은 자유도

⑤ 考 察

現在 低學年은 校服自律化 속에서 3年間 高校生活을 해오다가 本學에서는 制服을 입어야 하며 規則이 엄한 集團속에서 定해진 規定에 따라 生活해야 하기 때문에 行動에 大量의 制約를 받고 있다. 이전 環境속에서 圓滿한 內務生活을 하기 위하여 幹部 및 高學年과 低學年 사이에는 大量의 對人關係가 形成되고 있다. 特히 低學年의 生活指導(內務生活)의 大部分이 幹部에 의해 指導되고 있으므로 해서 幹部에 대한 認識은 물론 自身들의 行動과 態度에 대하여 매우 銳敏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寄宿生活의 結果로 나타나는 賞·罰에 카니즘인 諿則과 過失點에 對하여 過失이 大量인 學生이 善行이 있는 學生보다 銳敏한 程度가 有意的으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아 功過規定에 對한 學生들의 關心은 學年에 關係 없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敵對感

①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敵對感에 대한 2元變量分析結果는 〈表17〉과 같다.

〈表17〉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敵對感에 對한 分析

| 변 량 원 | 자 승 차(SS) | 자 유 도(df) | 평균자승차(MS) | F |
|-------|-----------|-----------|-----------|----------|
| G | 223. 040 | 3 | 74. 847 | 4. 729** |
| A | 14. 205 | 2 | 7. 102 | 0. 452 |
| G × A | 108. 901 | 6 | 18. 150 | 1. 154 |
| 오 차 | 8254. 253 | 525 | 15. 722 | |

** P < 0.01, G : 학년, A : 적응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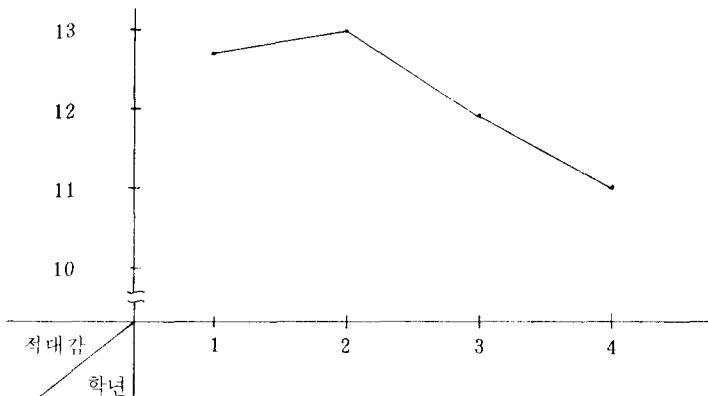
〈表17〉과 같이 學年에 따라 敵對感은 1% 有意水準에서 差異가 있고, 適應狀態와 相互作用에 의해서는 有意味한 差異가 없다.

〈表17〉의 結果에 따라 學年에 따른 敵對感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보면 〈表18〉과 같다.

〈表18〉에 의하여 學年에 따른 敵對感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表18〉 學年에 따른 敵對感의 平均과 標準偏差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1 | 136 | 12.81 | 4.29 |
| 2 | 127 | 12.84 | 4.12 |
| 3 | 127 | 11.97 | 3.74 |
| 4 | 147 | 11.31 | 3.69 |



〈그림 5〉 學年에 따른 적대감 정도

② 學年에 따른 敌對感의 個別比較를 위해 實施한 t 檢證(일방적 검증) 結果는 〈表19〉와 같다.

〈表19〉 學年에 따른 敌對感의 t 檢證

| 학년 | 1 | 2 | 3 | 4 |
|----|---|-----------------|------------------|-------------------|
| 1 | — | 0.0575 (261) | 1.6811* (261) | 3.1489** (281) |
| 2 | — | — | 1.7551* (252) | 3.2304** (272) |
| 3 | — | — | — | 1.4618 (272) |
| 4 | — | — | — | — |

* $P < 0.05$, ** $P < 0.01$, () 속은 자유도

〈그림 5〉와 〈表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學年 혹은 4學年보다 1學年이나 2學年이 敵對感이 높다.

③ 考 察

敵對感은 生活속에서 짜증, 공격성, 刺戟過敏性, 울분 등의 충동을 느끼는 狀態로서 現在生活의 雾靄氣와 個個人의 心的인 狀態를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集團生活에서 一週目中

週末에 上陸이 可能하고 그 外 特別한 境遇에만 上陸을 할 수 있는 生活 속에서 緊張과 스트레스를 誘發시킬 수 있는 要因들이 많으므로 해서 敵對感이 생기게 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2學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2學年은 1年間의 生活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模範이 되어야 한다는 周圍의 觀心과 期待에 對하여 자신들의 緊張 때문에 더 높은 反應을 나타낸 것이라 解析된다.

(5) 不 安

①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不安에 대한 2元變量分析結果는 〈表20〉과 같다.

〈表20〉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不安에 對한 分析

| 변 량 원 | 자승화(SS) | 자유도(df) | 평균자승화(MS) | F |
|-------|----------|---------|-----------|--------|
| G | 192.834 | 3 | 64.278 | 3.474* |
| A | 74.712 | 2 | 37.326 | 2.019 |
| G × A | 172.856 | 6 | 28.809 | 1.557 |
| 오차 | 9712.453 | 525 | 18.5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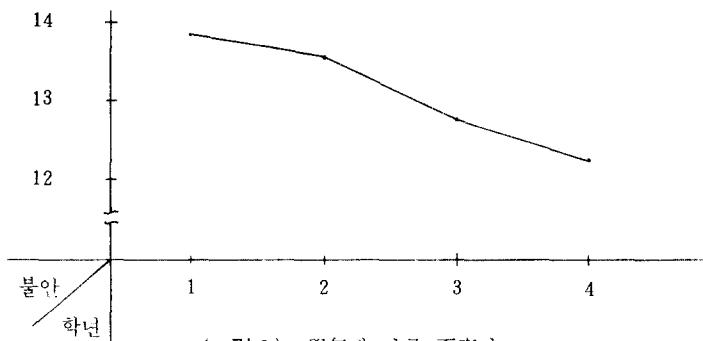
* P < 0.05, G : 학년, A : 적응상태

〈表20〉과 같이 學年에 따라 敵對感은 5% 有意水準에서 差異가 있고, 適應狀態나 相互作用에 의해서는 差異가 없다.

〈表20〉의 結果에 따라 學年에 따른 不安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보면 〈表21〉과 같다.

〈表21〉 學年에 따른 不安의 平均과 標準偏差

| 학년 | N | 평균 | 표준편차 |
|----|-----|-------|------|
| 1 | 136 | 13.53 | 4.43 |
| 2 | 127 | 13.30 | 4.53 |
| 3 | 127 | 12.17 | 4.19 |
| 4 | 147 | 12.40 | 4.15 |



〈그림 6〉 學年에 따른 不安정도

〈表21〉에 의하여 學年에 따른 不安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② 學年에 따른 不安의 個別比較를 위해 實施한 t 檢證(일방적 검증) 結果는 〈表22〉와 같다.

〈表22〉 學年에 따른 不安에 對한 t 檢證

| 학년 | 1 | 2 | 3 | 4 |
|----|---|-----------------|-------------------|------------------|
| 1 | — | 0.4146 (261) | 2.5470** (251) | 2.2077* (281) |
| 2 | — | — | 1.5098 (252) | 1.7093* (272) |
| 3 | — | — | — | 0.4538 (272) |
| 4 | — | — | — | — |

* P < 0.05, ** P < 0.01, () 속은 자유도

〈그림 6〉과 〈表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學年보다는 1 學年과 2 學年이, 3 學年보다는 1 學年이 不安이 높다.

③ 考察

不安에는 不安하게 될 수 있는 長期的 先行氣質(Long-term predisposition)이 있는 것을 特性不安이라고 하고 신경질이나 念慮의 일시적인 條件에 있는 것을 狀態不安이라¹⁸⁾ 하며, 또 不安은 內的 葛藤보다 구체적인 外的 事件들에 의해 더 많이 起起된다고 하였으며 一般化된 不安으로 苦悶하는 사람은 自身이 不安全感이 항상 存在하기 마련인 많은 生活狀況을 經制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¹⁹⁾ 하였다. 그러므로 學年에 따라서 不安의 差異가 있으며 低學年에게 不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學內生活에서 低學年的 任務와 役割, 先·後輩關係, 功過規定履行, 學科授業등 많은 問題들을 學校生活經驗이 不足한 低學年學生들이 自信있게 解決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 判斷된다.

Spielberger, Weitz 및 Denny(1962)는 大學 1 學年 在學中인 不安集團에 대해 相談을 實施한 實驗群(Test group)과 相談을 받지 않은 純屬群(Control group)과의 比較研究에서 相談을 받은 不安集團은 相談을 받지 않은 學生보다 輒씬 많은 進步를 보여 주었고, 더우기 實驗集團의 學業成績이 相談에 參여한 횟수에 따라 差異가 있다는²⁰⁾ 研究와 같이 本學에서도 不安을 많이 느끼는 低學年에 대하여 親密感 있는 對話와 關心이 더 주어져야 하겠다. 또 鄭聖德²¹⁾은 社會精神醫學의 要因과 不安成績의 相互關係에서 男大生의 경우 1 學年이 가장 높

18) 金慶麟·金榮煥 共譯: 前揭書, p. 474.

19) 李勤求 譯: 前揭書, p. 511.

20) 金慶麟·金榮煥 共譯: 前揭書, p. 344.

21) 鄭聖德 외 6人: 前揭書論文, p. 4.

고 高學年일수록 차츰 不安成績이 낮아졌다고 하였고 또한 女大生의 경우는 不安成績이 寄宿舍 혹은 기타에서 居住하는 學生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6) 全 體

①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全體點數에 대한 二元變量分析結果는 〈表23〉과 같다.

〈表23〉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全體點數에 對한 2元變量分析

| 변 양 원 | 자 총 화(SS) | 자 유 도(df) | 평균자총화(MS) | F |
|-------|------------|-----------|-----------|---------|
| G | 8916.862 | 3 | 2972.287 | 5.603** |
| A | 2862.189 | 2 | 1431.095 | 2.698 |
| G × A | 4131.690 | 6 | 688.615 | 1.298 |
| 오 총 | 278481.478 | 525 | 530.44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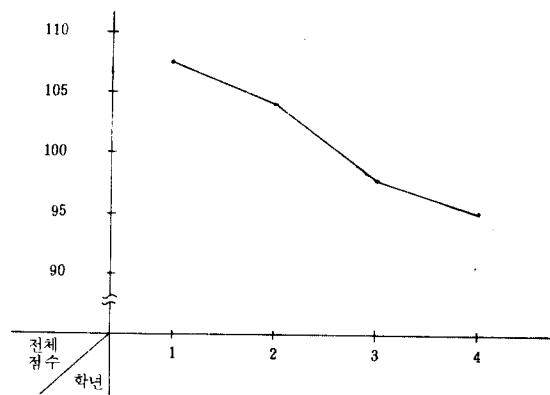
** P<0.01, G : 학년, A : 적응상태

〈表23〉과 같이 學年에 따라 全體點數는 1% 有意水準에서 差異가 있고, 適應狀態와 相互作用에 의해서는 差異가 없다.

② 學年에 따른 全體點數의 平均과 標準偏差는 〈表24〉와 같다.

〈表24〉 學年에 따른 全體點數의 平均과 標準偏差

| 학 년 | N | 평 | 근 | 표 준 편 차 |
|-----|-----|--------|-------|---------|
| 1 | 136 | 106.03 | 24.63 | |
| 2 | 127 | 104.50 | 23.44 | |
| 3 | 127 | 97.73 | 22.39 | |
| 4 | 147 | 97.30 | 22.09 | |



〈그림 7〉 學年에 따른 全體點數 경도

〈表24〉에 의하여 全體點數의 平均을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③ 學年에 따른 全體點數의 個別比較를 위해 實施한 t 檢證(일방적 검증) 結果는 〈表25〉와 같다.

〈表25〉 學年에 따른 全體點數에 對한 t 檢證

| 학년 | 1 | 2 | 3 | 4 |
|----|---|-----------------|-------------------|-------------------|
| 1 | — | 0.5133 (261) | 2.8423** (261) | 3.1319** (281) |
| 2 | — | — | 2.3444** (252) | 2.6056** (272) |
| 3 | — | — | — | 0.1591 (272) |
| 4 | — | — | — | — |

* P < 0.01, ** P < 0.05, () 속은 자유도

〈그림 7〉과 〈表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學年 혹은 2 學年은 3 學年이나 4 學年에 比해 全體의인 點數가 높게 나타났다.

④ 學年과 適應狀態에 따른 精神健康의 下位尺度들에 對한 F 檢證結果를 整理하면 〈表26〉과 같다.

〈表26〉 F 檢 證 結 果

| 종속변인 독립변인 | 강박증 | 우울 | 대인예민성 | 적대감 | 불안 | 전체 |
|--------------|-------|-------|-------|-------|-------|-------|
| G | N. S. | ** | ** | ** | * | ** |
| A | * | N. S. | * | N. S. | N. S. | N. S. |
| G × A | N. S. |

* P < 0.05, ** P < 0.01, N. S. : 의미 없음

G : 학년 A : 적응상태

V. 結論 및 要約

以上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研究問題와 關聯시켜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研究問題 1〉 學年에 따라 精神健康은 差異가 있는가?

學年에 따라 褒鬱, 對人銳敏性, 敵對感, 不安 및 全體點數에 差異가 있다. 特히 褒鬱, 對人銳敏性, 敵對感 및 全體點數는 1 學年과 2 學年이 3 學年과 4 學年보다 높고(表 11, 14, 19 및 表25 참조), 不安은 4 學年보다 1 學年과 2 學年이, 3 學年보다는 1 學年이 높다(表 22 參照).

〈研究問題2〉 適應狀態에 따라 精神健康은 差異가 있는가?

適應狀態에 따라 強迫症은 差異가 있다. 特히 過失點이 있는 集團이 善行點이 있는 集團이나 善·過失點이 없는 集團보다 높다(表8 參照)。

〈研究問題3〉 學年과 適應狀態의 相互作用이 精神健康에 影響을 주는가?

學年과 適應狀態의 相互作用은 精神健康에 影響을 주지 않는다(表26 參照)。

采船學科 學生들이 共同生活을 하는 過程에서 規則을 遵守하고 位階秩序를 維持하도록 하는 것은 장차 莫重한 責務를 遂行할 수 있는 適應力과 職業精神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그 過程에서 주어진 規定에 따라 生活하면서 行動에 많은 制約를 받고 規定에 無條件 順應하는 가운데서 行動의 消極性, 受動性이 形成된다. 이려한 狀況들이 蓄積되어 잘 때 個人的으로는 心的인 葛藤과 不適應을 갖게 된다. 多方面의 心的인 葛藤과 表現 가운데서 本研究와 같이 善·過失點이 있는 差異에 따라 心的인 狀態(精神健康)와의 關係는 그렇게 深刻한 問題는 아니었다. 다만, 過失點 付與가 低學年에게 큰 負擔과 强迫疾을 가져다 주는 要因이었고, 過失을 包含한 不適應 行動을 지적하는 者에 대하여 높은 對人銳敏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賞(Reward)은 올바른 行動에 대하여 罰(Punishment)보다 더욱 安定된 強度의 效果를 가지며, 公正적인 강화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이것은 團體生活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 集團보다는 責望을 받은 集團이, 또 責望을 받은 集團보다는 칭찬을 받은 集團이 더욱 效果적인結果를 보여주었다는 先行研究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本學에서는 善行者보다 過失者가 611名이나 많은 實情이며 그 分布가 學年에 關係없이 많음을 볼 때 低學年에게는 身上과 生活을 中心으로 指導해야 하겠으며 高學年에게는 信賴性이 있고 理解하는 姿勢에서 對話가 있어야 하겠다. 또 幹部 및 高學年들의 더 誠意있고 計劃的인 方向으로 低學年에 대한 指導가 되어진다면 보다 健全한 組織體 분위기 형성과 精神健康의 治療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金度麟·金榮煥 共譯: 一般心理學原論, 中央出版社, 1984.
- 2) 김광일 외: 簡易精神診斷検査, 서울中央適性출판부, 1984.
- 3) 金道煥: 教育의 心理學의 基礎, 第一文化社, 1977.
- 4) 金鳳韶: 青年期의 自己概念, 社會的 態度 및 適應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6.
- 5) 金仁子 譯: Psychology of Adjustment, 1984.
- 6) 서봉정: 性格과 適應, 익문사, 1980.
- 7) 孫兌鉉: 한바다 제15호, 韓國海洋大學, 1981.
- 8) 李勳求: 現代心理學概論, 正民社, 1984.
- 9) 吳澤燮: 社會科學데이터分析法, 나남, 1984.
- 10) 張秉琳: 心理學概論, 서울, 博英社, 1981.

- 11) 鄭世謨 外3人: 韓國海技士의 教育發展에 關한 研究, 海洋大學 海運研究所 論文集 第3輯, 1984.
- 12) 鄭聖德 外6人: 大學生들의 精神健康에 대한 評價, 非洲大學 의과대학, 1985.
- 13) Atwater Eastwood 著: *Psychology of Adjustment*, 1984.
- 14) Berscheid Dion, K.E. and Walster, E.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1972.
- 15) L.D., Crow & A. Crow, "Adolesc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McGraw-Hill" 1956.
- 16) Tatham, Ronald. L., Hair, Joseph. F. Jr., Anderson, Roph. E., Grablowsky, Bernie. J.,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troleum Publishing Company, 1979.